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Using
Overlapping and Bratticing

2012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장 문 신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Using
Overlapping and Bratticing

지도교수 박선우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장 문 신

장문신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
도 목 차	ii
작품목차	iii

I. 서론

1.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Ⅰ. 중첩

1. 중첩의 정의	3
2. 중첩의 공간성	6
3. 중첩의 예술성	8
4. 중첩을 소재로 한 작품사례	11

Ⅱ. 투각

1. 투각의 정의	17
2. 투각의 생명성	18
3. 투각의 조형성	19
4. 투각을 활용한 작품 사례	20

Ⅳ.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23
2. 제작과정	24
3. 작품설명	28

V. 결론

참고문헌	38
ABSTRACT	40

요 약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모든 물질은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여러 구성적 요소에 의한 중첩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공간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에 까지 영향을 준다. 시각적인 흥미로움과 긴장감으로 공간에 더욱 새로운 개념을 보여줄 수 있다. 공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곳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따르며 자유롭고 무한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인 중첩과 투각의 개념 및 정의에 접근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표현하고자하는 것은 공간의 깊이감을 주고 그곳에서 새로운 공간구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중첩된 공간에 투각이라는 표현기법을 첨가하여 그 공간의 깊이감을 극대화하였다.

Ⅱ 장에서는 중첩의 정의를 알고 중첩의 공간성과 예술성을 고찰해보고 중첩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중첩은 ‘여러 겹이 겹쳐있는 형태’를 뜻한다. 하나의 면 위에 다른 면이 겹쳐지면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중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시각적 측면에서 공간의 움직임을 만들어 무한한 세계를 만든다. 중첩을 통해 공간의 활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Ⅲ 장에서는 투각의 정의를 알고 투각의 생명성과 조형성을 고찰해보고 투각 작품을 살펴보았다. 투각의 사전적 의미는 묘사할 대상의 윤각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 또는 그런 기법이다. 투각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알아 보고자한다.

본인 작품은 중첩과 투각을 통하여 공간을 만들어내고 원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투각으로 이중·삼중구조의 중첩된 기물에 투각을 통하여 외벽과 내벽과의 공간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중첩된 면이 투각이란 표현기법으로 공간을 만들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됨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본인의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갖고자 한다.

표 목 차

[표1] 소성 그래프	27
-------------------	----

도 목 차

[도1] Gyorgy Kepes, 『Advertising Design』, 1938.....	3
[도2] Theo Van Deosburg, 『Private housing Designs』, 1923	4
[도3] 면의 중첩에 의한 깊이 지각	5
[도4] 공간감이나 깊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7
[도5] 중첩되는 형태는 공간감을 이루어 낸다.....	7
[도6] Georges Braque, 『Houses at the Estaque』, 1908.....	9
[도7] Piet Mondrian, 『Compositoi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	10
[도8] Vladimir Evgrafovich Tatlin , 『The Third International』, 1919-20	11
[도9] Pablo Picasso, 『Chair Caning』, 1912.....	12
[도10] El Lissitzky, 『Proun』, 1919	12
[도11] Jackson Pollock, 『Autumn Rhythm : Number 30』, 1950	12
[도12] David Salle , 『Sin Titulo 8』, 1984	13
[도13] David Salle , 『Sin Titulo 10』, 1984	13
[도14] 김미화, 『대지Ⅱ』, 2004	14
[도15] Shihoko Hukumoto, 『天空』, 1989	14
[도16] 이혜린, 『A Serise of Herstory Ⅲ』, 2006	14
[도17] Herzog & de Meuron Architekten, 『Beijing Olympic Stadium』, 2008.....	14
[도18] Zaha Hadid, 『Contermporary Art Center』, 1939	15
[도19] 최경우, 『상호 관입된 형태의 중첩』, 2007	15
[도20] Brabro Aberg, 『Spiral Wheel』, 2003	15
[도21] Chambers Matthew, 『Increment duetto』, 2009.....	15
[도22] 『굽접시모양그릇받침』, 신라	18
[도23] 『굽다리접시』, 신라	18
[도24] 전성근, 『백자한글투각사각문』, 2011	21
[도25] Tony Marsh, 『Untitled』, 1996	21

[도26] Komatsu Makoto, 『KUU Series』, 2009	21
[도27] Komatsu Makoto, 『KUU Series』, 2001.....	21
[도28] 우 진순, 『브로찌』, 1997	22
[도29] 정진아, 『점의 중첩4, 5』, 2005	22
[도30] Eduardo Andaluz, 『Bowl』, 2001	22

작품목차

[작품1] 중첩 I	28
[작품2] 중첩 II	29
[작품3] 중첩 III	30
[작품4] 중첩 IV	31
[작품5] 중첩 V	32
[작품6] 중첩 VI	33
[작품7] 중첩 VII	34
[작품8] 중첩 VIII	35
[작품9] 중첩 IX	36
[작품10] 중첩 X	36

I. 서 론

1. 연구목적

모든 물질은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과 환경은 여러 구성적 요소에 의한 중첩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공간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 영향을 준다. 우리는 공간을 접하고 있다. 공간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시각적인 흥미로움과 긴장감으로 공간에 더욱 새로운 개념을 보여줄 수 있다.

중첩과 투각을 통한 공간을 표현하려고 한다.

첫째로 중첩의 개념 연구와 공간의 대한 개념 연구가 필요하다. 중첩은 ‘여러 겹이 겹쳐있는 형태’를 뜻한다. 하나의 면 위에 다른 면이 겹쳐지면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게 된다. 공간은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곳’을 뜻한다. 또한 중첩은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시각적 측면에서 공간의 움직임 만들어 무한한 세계를 만든다. 우리는 공간적 차이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간감을 느끼는 것이다. 중첩을 통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둘째로 투각의 용도와 효과에 대하여 알고자한다. 투각은 도자기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사전적 의미는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투각의 생명성에서는 우리나라의 투각의 역사에 대해서 조형성에서는 투각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투각을 통해 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첩과 투각을 응용하여 다양한 시각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중첩과 투각을 이용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조형적 공간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기위한 방법으로 중첩의 공간 형태를 파악하고 투각을 통해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세상 속의 모든 사물은 공간 속에 인간의 시각적 감각에 의해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과 투각을 알아보고 이 방법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첫째, 중첩의 정의를 알고 공간을 살펴보았다. 공간성과 예술성을 고찰하였다. 중첩이 예술 작품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둘째, 투각의 정의를 알고 투각의 생명성에서는 우리나라의 투각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투각의 역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조형성에서는 투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작가들의 작품을 알아보고 특성을 이해하고 살펴보았다.

셋째, 기하학적 형태의 중첩된 작품에 투각기법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원의 변화와 패턴에 의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이중·삼중구조로 하여금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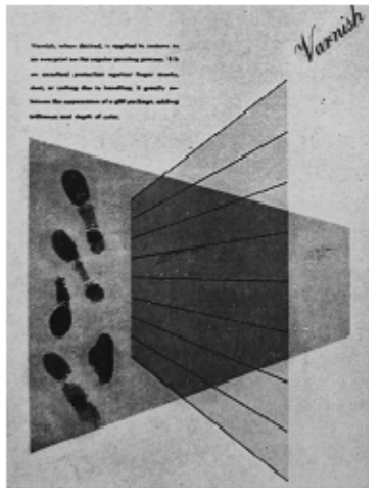
작품제작 방법에 있어서 중첩을 통해 여러 겹의 기벽을 만드는 과정, 투각을 가능한 시기와 접합을 하기위해서의 시기를 찾아가려는 하였다. 소지는 형태가 깔끔하게 떨어지고 투각을 할 때에 용이한 입자가 고운 소지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원기둥 형태를 제작한 후 투각을 하여 각각을 붙여서 다듬고 만들어 중첩된 형태를 완성하였다. 유약은 매트유를 사용하였으며 850℃에서 1차 소성하고, 1250℃에서 2차 산화소성 하였다.

II. 중첩

1. 중첩의 정의

중첩(overl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겹쳐지고 포개어짐’¹⁾을 뜻하며, 회화적으로는 콜라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축에서는 동시성, 침투성, 다층, 투명성, 중첩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중첩은 형태의 겹쳐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형태 위에 겹쳐질 때, 두 형태사이에는 전후관계가 생기게 된다.²⁾ 중첩은 둘 이상의 형태가 겹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첩의 형태적 의미가 여러 층이 겹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각각의 대상들이 이중·삼중구조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통해 이미지 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의 반복처럼 간주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려어진 형태의 적절한 활용은 은은하면서 깊이를 표현하며, 중첩된 형태에 따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감정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 공간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중첩은 거리와 형태의 윤곽선에 강한 깊이를 보여준다.



[도1] Gyorgy Kepes, 『Advertising Design』, 1938

G. 케페스(Gyorgy Kepes)의 『Advertising Design』 [도1]은 중첩의 개념을 보여준다. G. 케페스는 중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만일 하나의 공간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려서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뒤에 가려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겹쳐있는 형상을 볼 때 첫째의 것, 즉 맨 앞의 것은 두 개의 공간적 의미 그 자체와 그 자체 밑에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다른 형상의 볼 수 없는 표면을 가리운 형상은 더욱 가까운 것으로 지각된다. 우리는 공간적 차이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중첩의 표현은 깊이를 가리킨다. 그것은 공간감을 일으키게 된다.³⁾ 우리는 보면서 하나의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겨진 것까지 인식을 한다. 이것이 바라보며 중첩을 통해서 깊이를 느끼며 새로운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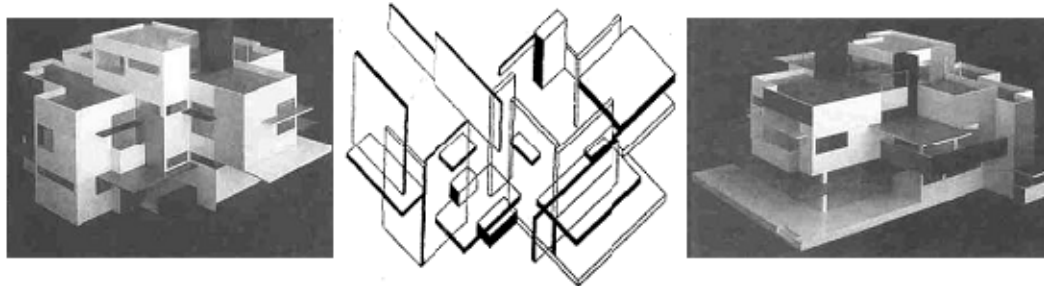
1) 어문각연구소. 『우리말사전』. 어문각. 2008. p.2099

2) 아사쿠라 나옴. 김학서, 조열(공역). 『평면구성』. 조형사. 1999. p.183

3) 조지 케페스. 유한태(역). 『시각언어』. 대광서림. 1989. p.76

다.

“우리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형태가 서로 중첩되고 그 각각이 공통의 중첩된 부분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공간적 크기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상의 특징적 존재를 추측해야만 한다. 형태에는 투명성이 부여된다. 즉 형태는 서로 시각상의 파괴없이 상호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단순한 특징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은 단순히 후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앞뒤로 격동하고 있다 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각각의 형태를 가까운 것으로서도 볼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⁴⁾



[도2] Theo Van Doesburg, 『Private housing Designs』, 1923

반 도스버그의 개인주택 설계안 [도2]⁵⁾는 여러 면의 중첩을 활용한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통해 끝없는 공간을 보여준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⁶⁾에 의해 표현되어진 ‘중첩은 계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 내는 방편중의 하나이다. 중첩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한 대상 한이나 여러 대상의 배치에서 생길 수 있다.’⁷⁾ 중첩의 반복적인 겹침으로 부분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로 우리는 공간의 깊이를 더욱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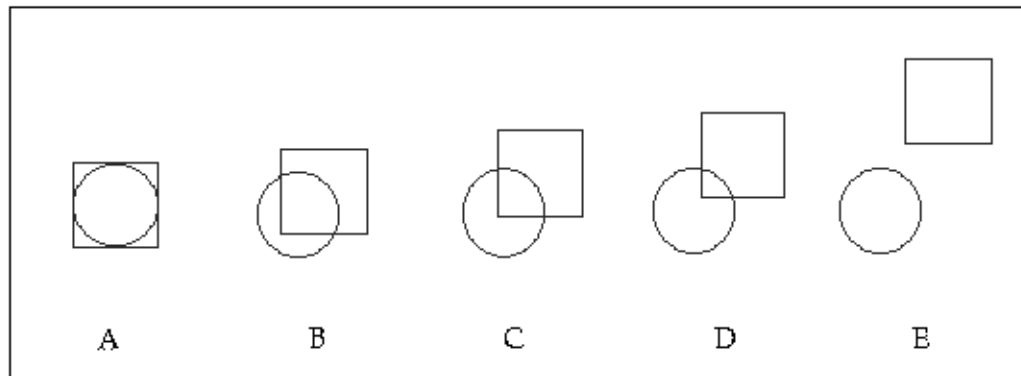
루돌프 아른하임의 『미술과 시지각』에서의 [도3] 면의 중첩의 의한 깊이

4) 조지 케페스 Ibid. p.77

5) 최경우, 『중첩의 개념과 형태-공간적 유형 특성을 적용한 전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7

6) 루돌프 아른하임(1904~2007): 독일 태생, 대학 형태심리학전공, 주요저서 『예술로서의 영화』, 『게르니카의 심리학』, 『시각적 사고』, 『미술과 시지각』 등이 있다.

7)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1995. 미진사. p.114



[도3] 면의 중첩의 의한 깊이 지각

지각에서는 공간적 깊이의 진행단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적 도형이다. A는 정사각형과 원의 단순한 배치가 강하게 뭉쳐진 전체 패턴을 이루고 있고 정사각형과 원의 중심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원의 직경은 사각형의 벽과 일치한다. E에서는 최대한의 분할이 보여지고 있다. 패턴 A의 전면적인 대칭은 이제 두 개의 단위들이 혈령하게 이탈되어 있어서 서로 접촉하거나 대칭관계에 있지 않다. B, C, D는 상하중복(superposition; 상하로 포개 놓은 상태)의 예로서 세 개가 모두 두 개의 하위단위들로 갈라짐으로써 전체의 통일감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통일의 성격은 셋 중에서 C가 가장 약하다. 그것은 C에서는 원의 중심이 사각형의 대각선 위에 놓여 있고 사각형의 귀퉁이 한 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대각선 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전체의 통일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A와 E는 긴장(tension)이 거의 없다. A에서는 위치, 크기, 형상에 있어서 두 단위가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E에서는 일체 접촉이 없어서 충돌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B, D 같은 중간 정도의 있는 도형들에서는 긴장이 뚜렷이 느껴진다. B, C, D는 긴장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사각형과 원을 합치거나 하는 양단간의 해결을 내는 쪽으로 그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듯이 보여진다. 중첩은 판면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대에서 두 개의 중첩된 건물 사이의 공간은 좌우 다른 쪽에 놓인 건물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더 그럴 듯해 보인다. 그리고 전경의 깊이의 실제적인 차이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후경에 그려놓은 중첩의 효과를 더 크게 해준다.⁸⁾

8) 루돌프 아르하임. Ibid. p.251

2. 중첩의 공간성

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는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곳, 둘째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있는 빈곳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된다.⁹⁾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곳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공간(space)이란 '무엇인가가 작용하는 넓은 퍼짐'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어디까지나 퍼져나가는 허공'의 뜻인 'Spatium'이라는 고대어에서 유래된 'Space'가 이에 가깝다.¹⁰⁾

공간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인간의 삶에 자연적 인위적이든 간에도움을 주는 공간. 둘째, 외부와 내부를 인식할 수가 있는 인식적 공간. 셋째, 미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주는 감성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공간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는 공간적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인간이 주체가 된 공간이라야 진정한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을 비어 있는 공(空)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물과 사물을 이어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¹¹⁾ 중첩된 이미지는 무한한 공간과 함께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의 두 벽 사이의 공간에서 내부공간은 폐쇄되고 닫힌 공간으로부터 개방되고 열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부피감과 안정감을 보여 주며 조형적 요소의 특성을 가진다.

공간은 모호하고 무한 속에 녹아 있다 이 공간에다 물리적인 한계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공간 그 자체는 한계가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러한 공간은 자연의 손 또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형태의 경계선을 얻는다. 따라서 공간지각은 대상의 크기, 형태 및 대상 상호 또는 관찰자와 대상의 방향과 거리에 의해서 파악된 공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¹²⁾

공간구성에서 중첩배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각 공간을 이동하는 관찰자에게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연결되는 공간사이에 미묘한 연속성을 부여한다.¹³⁾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규칙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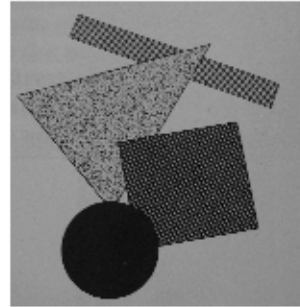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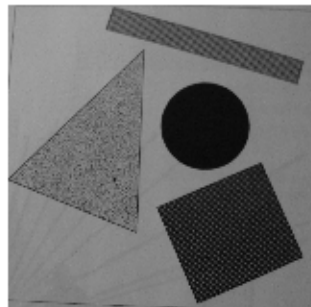
9) 권태명.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10) 김정민. 『건축공간구성의 양면성에 입각한 Rem Koolhaas 건축의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9

11) 윤일. 『행복한 공간문화 디자인을 위한 진화심리학적 고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3

12) 최은경. 『기하학적 조형을 통한 감각적 공간체험: "Vague Space" 연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4

고, 연속적인 형태를 상상에 의해 추측하고, 부분적으로 가리어져 있거나 공제된 형태를 확장시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로 시각상의 방해를 주지 않고 상호 관입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¹³⁾ 중첩은 새로운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 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불필요한 것은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 중첩은 공간에 깊이감과 공간의 공간 구성을 더욱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도4】 공간감이나 깊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도5】 중첩되는 형태는 공간감을 이루어 낸다.

중첩은 깊이감을 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도4】에서는 4개의 구성요소가 보이지만 이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떤 상태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도5】의 경우에는 서로 겹쳐 있으므로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각각의 형은 서로 다른 것 위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깊이감이 생겨나고 있다.¹⁵⁾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호 연관성을 추구 할 때 표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다. 또한 면의 중첩은 빛과 단위형의 색채, 재질에 따라 강조 되거나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의 적절한 변화로 공간에 방향성, 연속성을 부여 할 수 있고, 단조롭고 지루하기 쉬운 공간을 다양한 운동감으로 나타 낼 뿐 아니라 사전에 계획 되지 않은 우연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¹⁶⁾

중첩은 계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법 중의 하

13) 이정주. 『현대자수에 설치방법에 있어서 중첩과 반복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p.19-20

14) 김현미. 『중첩에 의한 공간역동성 및 연속성의 표현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p.27

15) 데이비드A 리우어, 스테플론 펜탁.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예경. 2002. p.178

16) 유명강.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설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p.6

나이다.¹⁷⁾ 중첩은 고정된 화면 속에 여러 형상들을 중첩에 의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화면은 실제 크기 표현 할 수 있는 조건과 평면의 공간적 3차원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중첩을 통해 공간의 창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간의 중첩은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공간이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방식과 둘이상의 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방식, 그리고 공간 간에 거리를 두고 중첩되는 방식이다.¹⁸⁾ 공간간의 중첩을 통해 공간적 깊이를 느낌으로 공간 간에 연속성을 보인다. 중첩은 보다 통일되고 반복된 형태의 진행으로 그 형태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단순히 겹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패턴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층이 겹쳐져 생긴 이중구조의 특성을 지닌다. 이중·삼중 또는 그 이상의 중첩으로 각 공간사이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된다.

중첩 형태는 인식대상들이 동시에 이중구조를 지닌 대상으로 나타나는 서로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중첩되어 이미지 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첩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원래 의미와는 다른 형태와 미를 창출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간의 깊이를 가지며 이 깊이는 투명성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첩 형태는 보는 이에 따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반대감정까지 보존할 수 있는 시·공간에 따라 드러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¹⁹⁾

3. 중첩의 예술성

공간에 중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큐비즘²⁰⁾ 이후로, 중첩에 의해서 평면적 구성을 입체적인 구축으로 전환시켜 나간 데 스틸(De Stijl)²¹⁾과 구성주의(Constructivism)²²⁾로 계승되었다.²³⁾

17) 루돌프 아르하임. Ibid. p.114

18) 유명강. Ibid. p.6

19) 남현우.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9

20) 큐비즘이란 20세기 전위예술의 한 양식인 입체파(立體派)를 지칭하는 말. 피카소가 시조로 되어 있는데 원뿔, 루이스 등이 이를 영국에 소개했다. 자연의 사물을 단순화시킨 화면과 선과 기하학적인 형을 써서 단색으로 그려,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백·김원경·김선중 교수 감수. 『국어국문학자토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21) 데 스틸이란 스타일의 뜻으로 1917년 추상화가 반 도에스버그가 네덜란드의 건축가 야코부스 오드, 화가 몬드리안과 같이 라이덴에서 아방가르드잡지 <데 스틸>을 창간한 것을 시작으로 전개된 조형예술운동이다. 안연희역음.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p.93

22) 구성주의란 용어는 1920년 발표한 <레알리즘>에 의해 자극받은 이 유파의 작가들이 미술의 목적에 관한 토론 끝에 1921년에 만들어낸 말이다. 현재에 와서는 구성주의란 거의 모든 기하학적 추상에 적용되기도 한다. 회화, 조소, 건축, 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이름 그대로 자연의 재현을 배격



[도6] Georges Braque, 'Houses at the Estaque', 1908

큐비즘의 어원은 살롱 도톤느(파리 가을 공모전)에 출품된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의 풍경화 『Houses at the Estaque(에스타그의 집들)』 [도6]을 본 마티스가 “조그만 큐브(상자)들을 모아 놓은 것 같군.”이라고 말한 것에서 출발한다.²⁴⁾ 큐비즘에서는 투명효과를 이용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전체 화면을 분리하여 일정한 순서로 나란히 배열하여 대상을 조각적인 형태로 재구성했는데, 이는 어느 한 면도 강조하지 않고 대상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하나의 화면 속에 집약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었다.²⁵⁾

큐비즘이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을 매혹시킨 것은 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간 상에 나타나는 자유스러움이였다. 시간과 공간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한 것은 칸트였으며 인식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공간보다 논리적으로, 또 선형적으로 직관에 있어 우선한다고 하였다. 즉 공간을 생각할 수 없는 데서는 시간은 폐지된다는 주장이다.²⁶⁾

그런데 큐비즘의 가장 두드러진 방식이 콜라주(Collage)였다. 콜라주란 ‘플로 붙이다, 바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콜레(colle)에서 유래된 말로 미술에서는 천이나 인쇄물, 나뭇조각, 모래 등 각종 재료를 캔버스나 패널 같은 평면에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기법을 말한다. 미술에서의 콜라주 기법은 1911년경 입체주의의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화면에 물감 대신 천 조각, 신문지, 벽지 등의 기물을 붙여 완성함으로써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탄생시켰다.²⁷⁾ 콜라주는 중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큐비즘에서는 중첩으로 표현되어서 공간적 깊이감, 색채, 질감으로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본질적인 순수한 조형요소의 구성을 기본 원리로 하였기에 불필요한 장식성이 배제되었다. 안연희 위음. Ibid.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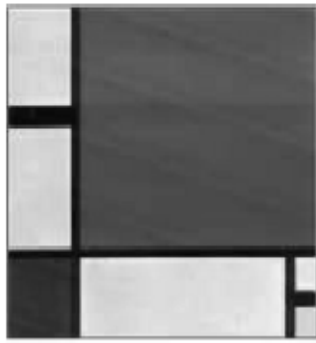
23) 유명강. Ibid. p.11

24) 홍태희. 서양 미술사. 서울 문화사. 2006. p.119

25) 고선영. 『중첩이미지를 응용한 디지털 날염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08. p.10

26) 조명희. 『회화의 표현특성을 응용한 조명관매 공간 계획: 큐비즘 회화의 콜라주기법을 활용하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2009. p.10

27) 안연희 위음. Ibid. p.420



【도7】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네델란드어로 ‘스타일, 양식’을 의미하는 데 스틸 (De Stijl)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데오 반 도스버그 (Theo Van Doesburg), 그리고 가구 제조업자이자 건축가였던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등과 같은 네델란드 출신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1917년 파리에서 결성한 조형예술 운동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이 이름은 그들이 발간한 잡지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말로로는 ‘신조형주의’라고도 불린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 또한 공간표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들은 4차원적 공간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들을 평탄한 면들로 자유스럽게 분해한 다음 이들을 재조립하는 기법을 사용, 면의 집합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형태와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이 때 중첩의 역할은 면의 조합 체계 원리에 잘 나타나는데, 이 원리에 잘 나타나는데, 이 원리는 대별 단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원래 이 개념은 반 도스버그(Van Doesburg)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평면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간적인 차원으로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중첩을 활용하였다. 그는 시간, 공간의 영역내에서 4차원적인 조형성의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4차원적 공간 개념의 표현이야말로 시각 예술의 중심적인 문제를 구현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형태에 대한 기존 개념은 변화되어, 내·외부의 공간은 밀접하게 상호 침투되었고, 장식은 제거되는 대신, 명확한 비례와 진실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작품에 투명성과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즉 실제 공간개념을 표현해 내기 위해 면을 적당하게 배치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첩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²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도7】에서는 면의 분할과 중첩을 통해서 공간의 역동적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큐비즘의 공간개념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구성주의의 예술작가들은 공간을 큐비즘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의 평면화에 따른 공간의 조형화라는 의미에서 보다는 공간을 집적적인 대상으로 시각화했고, 이러한 공간구성의 구체적인 운동감을 도입하였다.²⁹⁾

28) 고신영. Ibid p.11

이 경향의 이념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1915년 가보가 제작한 조소 『구성된 두상 No.2』 1919년 엘 리시츠키(El Lissitzky)가 건축조소 회화의 중간적 형태로 제작한 도안적 반표현적적 기하학적 스타일의 프로운(Proun: ‘새



【도8】 Vladimir Evgrafovich Tatlin, 『The Third International』, 1919~ 20년

로움을 위한 계획’이란 뜻의 러시아 관용구의 생략어)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으나, 1919년 정부의 의뢰로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이 모형으로 제작한 높이가 400m가 넘는 철재 구조물 『The Third International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도8】이 단연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구성주의에서는 대체로 과학의 합리성과 첨단 테크놀로지를 찬미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였다.³⁰⁾ 여러 재료들 금속이나 나무, 유리 밖의 근대 공업에 쓰이던 새로운 재료를 결합해 사용하였고 하나의 형태 안에 또 다른 형태를 중첩하므로 조형물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의 큐비즘을 비롯한 기하학적 추상회화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받아 들여 그들의 예술사조형식을 개발해 나갔다. 큐비즘 회화로부터 생성된 콜라주의 기법은 근대 회화와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데 스틸과 러시아 구성주의는 콜라주기법을 각기 적절한 방법으로 회화와 건축에 적용시켰는데, 이러한 예술의 새로운 공간개념의 도입과 시도에 있어 중심에 있었던 것은 ‘중첩’이라는 개념이었다.³¹⁾ 건축, 회화, 조각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중첩을 사용하여 공간의 새로움을 창조와 자유로운 흐름, 내·외부공간의 상호 간의 열린 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중첩을 소재로 한 작품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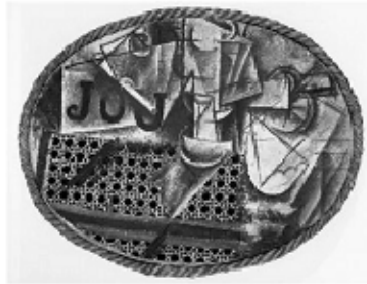
중첩의 형태적 의미가 여러 층이 겹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서로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겹쳐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이미지 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의 반복처럼 간주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려어진 형태의 적절한 활용은 은은하면서 깊이

29) 유명강. Ibid. p13

30) 안연희역음. Ibid. p46

31) 유명강. Ibid. p13-14

를 표현하며, 중첩된 형태에 따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변화무쌍한 감정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 시·공간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중첩은 거리와 형태의 윤곽선에 강한 깊이를 보여준다. 작가들의 작품에서 중첩을 찾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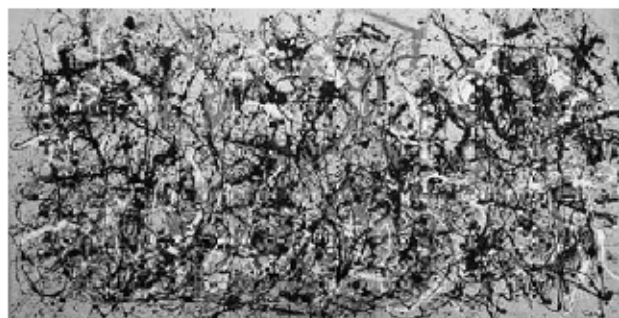


[도9] Pablo Picasso, 『Chair Caning』, 1912



[도10] El Lissitzky, 『Proun』, 1919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Chair Caning(동 나무의자가 있는 정물)』 [도9]는 큐비즘의 콜라주 작업으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중첩을 이용한 작품이다. 엘 리시츠키(El Lissitzky)의 『Proun(프로운)』 [도10]은 중첩을 통해 공간의 개념의 중요성을 이해한 작품이다.



[도11] Jackson Pollock, 『Autumn Rhythm : Number 30』, 1950

잭슨 폴록(Jackson Pollock)³²⁾의 작품 『Autumn Rhythm (가을의 리듬)』 [도11]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반복을 작품 속에는 겹겹이 물감을 뿌리는 것을 통해 공간감을 형성해 중첩을 표현해 주었다. 중첩의 큰 효과로서 공간감과

32) 잭슨 폴록은 40년대 추상표현주의를 주도했으며, 특히 액션 페인팅의 대표적 인물이다. 상당한 양식적 실험을 거친 끝에 1947년경 '드리핑'이라는 극단적인 기법을 개발했다.

깊이감을 보여준다. 물감의 여러 번의 덧칠로 겹쳐지고 하는 부분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평면에서의 중첩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중첩 이미지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작가로는 데이비드 살르(David Salle)를 들 수 있다. 그는 1980년대에 뉴욕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 근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작가이다.



[도12] David Salle , 『Sin Titulo 8』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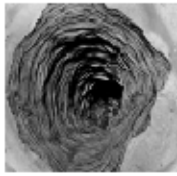


[도13] David Salle , 『Sin Titulo 10』 ,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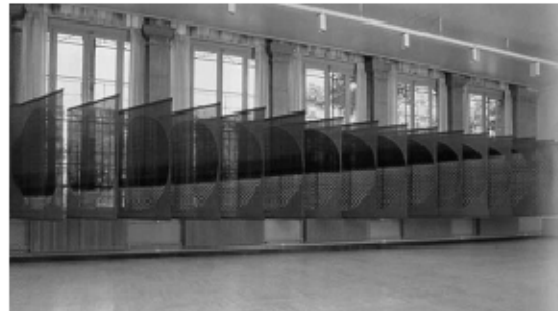
데이비드 살르의 작품 『Sin Titulo 8, 10』 [도12], [도13]는 회화의 표현에서 주된 전략으로 투명정보보다 화면내에서 다중적 구조(이중인화, 오버레이드 수법)와 두 개 혹은 세 개로 분리된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의 화면 계획은 마치 유리 한 장이 있고, 그 위에 깊은 공간이 갑작스러운 추억으로 확장되는 것 같은 기묘한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는다.³³⁾ 실제로 아래에 그림들을 보면, 마치 완성된 한 작품 위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낙서처럼 덧칠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덧칠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존의 독립된 이미지일 뿐 아니라, 중첩되어 표현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가 갖는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즉 중첩되어 덧칠해진 표현이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첩되어 덧칠해진 표현이 달라질 경우, 기존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작품 전체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 그만큼 표현의 영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³⁴⁾ 화면 위에 또 다른 그림을 중첩하므로서 겹쳐진 그림을 다른 그림의 이야기를 보여 줄 수 있다.

33) Janet Kardon. Lisa Phillips. 『David Sal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13(김정은.1999에서 재인용)

34) 고신영. Ibid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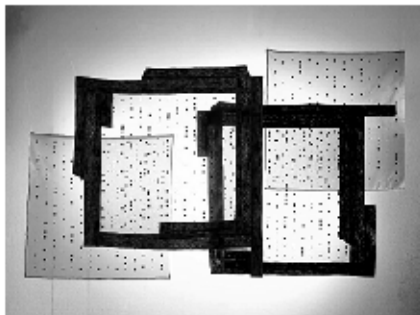


[도14] 김미화, 『대지Ⅱ』, 2004



[도15] Shihoko Hukumoto, 『天空』, 1989

김미화의 작품 『대지Ⅱ』 [도14]은 대지를 주제로 한 작업으로 판들의 여러 겹의 중첩을 통해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내부의 깊이를 표현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시호코 후쿠모토(Shihoko Hukumoto)의 작품 『天空』 [도15]은 설치 작업으로 천에 여러 겹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 나열하여, 중첩됨에 따라 입체적인 공간을 표현하였다.



[도16] 이혜린, 『A Serise of Herstory III』,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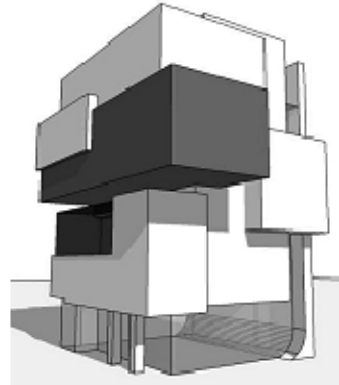
[도17] Herzog & de Meuron Architekten, 『Beijing Olympic Stadium』, 2008

이혜린의 작품 『A Serise of Herstory III』 [도16]은 여러 개의 천 조각을 중첩을 통해 천조각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 [도17]은 베이징 국립경기장,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이라고도 한다. 그 모양에서 이름을 따 속칭 새둥지(鳥巢 나오차오)라고 불리고 있다. 베이징 국가체육장은 2008년 하계 올림픽의 육상 경기장으로 쓰였으며, 또한 올림픽의 개회식 및 폐막식

장소로도 쓰였다. 새둥지의 나뭇가지 등이 여러 겹 겹친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 하여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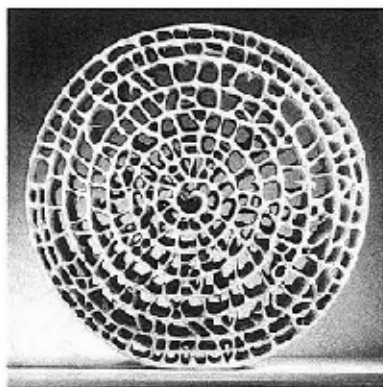


[도18] Zaha Hadid, 『Contemporary Art Center』,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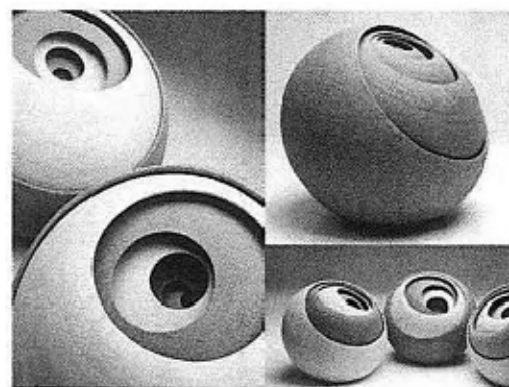


[도19] 최경우, 『상호 관입된 형태의 중첩』, 2007

Zaha Hadid의 『Contemporary Art Center』 [도18]은 1939년 미국 최초의 현대 미술관 중 하나로 신시내티에 설립된 이 자유로운 스타일의 건물은 현대시각미술 연구를 위한 건물이다. 조각퍼즐을 면분할하여 중첩적으로 표현한 건물이다. [도19]는 건물의 다이어그램이다.



[도20] Brabro Aberg, 『Spiral Wheel』, 2003



[도21] Chambers Matthew, 『Increment duett o』, 2009

35) 최경우. Ibid p.77

알버그 브라브로(Brabro Aberg)의 작품 『Spiral Wheel』 [도20]은 큰 평면적 원의 이미지를 중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얇게 빛은 판의 중첩으로 돌아가는 형상을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챔버스 매튜(Chambers Matthew)의 『Increment duetto』 [도21]은 석기질 점토를 가지고 물레성형 및 손작업으로 원의 중첩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입체적이고 여러 겹의 겹침으로 공간과 재미를 주는 작업이다.

II. 투 각

1. 투각의 정의

투각기법은 도자기나 나무, 금속 등에 예리한 조각도로 구멍을 뚫거나 파내어 풍경, 꽃이나 열매, 동식물 등 문양을 조각하는 입체적이고 화려한 조형기법이다. 사전적 의미는 묘사할 대상의 윤각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 또는 그런 기법이다. 투각기법은 여러 가지 공예부분에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자기의 범주에 속하는 투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도자기에서는 기물이 알맞게 약간 건조된 후, 예리한 조각도로 구멍을 뚫거나 파내어 문양을 넣는 장식기법으로 문양을 투각하는 경우와 문양의 이외의 부분을 파내는 경우가 있다.³⁶⁾ 도자기에 시문을 하고 주 문양의 바탕면을 뚫어내면 주문양이 더욱 선명하고 입체감을 나타내게 된다. 이중호 등 이중 기벽으로 제작되는 도자기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필통, 향로 뚜껑 등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투각은 기물이 너무 건조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투각된 부분의 크기가 작고 투각의 양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이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투각 모양을 기물 전면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쪽으로 몰리면 소성 시 하중으로 인한 변형 내지는 파손의 우려가 크다.³⁷⁾ 투각은 건조시기를 잘 맞추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를 잘못 맞추면 금이 가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의 작업을 다시 하여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소성시에 기벽의 균열이나 일그러짐 방지, 무게를 가볍게 할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투각에서 구멍을 뚫을 때는 뾰족한 것으로 뚫을 수도 있지만 깔끔하고 섬세한 문양을 내기 위해서는 칼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조각도로 투각하며 끝을 뾰족하며 날카롭게 다듬은 파이프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기에 손과 작업에 맞는 제작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 작업시간의 단축과 좀 더 나은 완성도에 도움이 된다. 투각을 한 후 날카로운

36) 김병익, 『도자 장식기법』, 태학원, 2002, p.14

37) 이진성, 노덕주, 이지연, 정재진, 이용석 공저, 『도자공예개론』, 예경, 2008, p.106

모서리 부분은 좀 더 작은 칼이나 다양한 모양의 스폰지, 붓 등을 이용하여 다듬어야 한다.

2. 투각의 생명성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신라 토기, 백제 토기, 통일 신라 토기에서 볼 수 있는 굽다리접시 등의 그릇에 굽을 높게 달아 그곳에 투각을 해 왔으며, 그 후 청자, 백자 등에도 전통 문양으로 이 기법이 전수되고 있다.³⁸⁾

투각은 우리나라에서 건축, 조각, 공예 등에 다양하게 사용해 왔으나 그 폭이 넓게 사용되지는 못했던 조형기법이다. 투각은 제작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왕관 등에 권위적인 장식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투각기법은 도자기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어 왔다. 투각은 성형 후 어느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어려운 기법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다. 투각의 역사는 먼 부족 국가 시대의 토기 장식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야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토기를 유물로 남겼는데 고배(굽다리잔), 기대(그릇받침), 제기, 이형 토기 등에서 투각 기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후 고려시대에 내려오면서 투각기법은 화려하게 발전되었다. 단순한 타원의 형태를 반복하여 꽃이 피어있는 듯 한 아름다움과 공기의 소통이 잘 되도록 장식되었으며 장식이 화려하고 귀족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화장 상자나 베개 등에 당초, 귀갑, 연화, 모란 같은 대부분 단순한 무늬를 반복적으로 장식하였다.³⁹⁾ 투각은 향로덮개처럼 공기의 소통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었다.



[도22] 「굽접시모양그릇받침」, 신라



[도23] 「굽다리접시」, 신라

38) 이진성 공저. Ibid. p.106

39) 노황우. 『투각기법을 활용한 전통 상품패키지디자인 연구』.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p.309

【도22】, 【도23】에서의 신라토기에서 보여지듯 굽다리에 창구멍을 뚫었는데, 이것은 장식용이기도 하지만 높게 만든 굽 안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고안된 것인 보여진다. 투각백자는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고, 그 공간을 투각수법으로 장식한 백자이다. 투각무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바탕을 청화로 한 것이 많고, 순백자에 투각한 것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투각무늬에는 동물을 주제 한 귀갑무늬(龜甲紋)와 용과 구름을 새긴 것 등이 있으며, 식물을 주제로 한 무늬에는 포도알과 잎, 덩굴을 새긴 것과 모란꽃과 잎, 가지를 새기고 공간을 투각한 것 등이 있다. 이외에 고리나 격자무늬를 남기고 공간을 투각한 것도 있다.⁴⁰⁾ 투각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공간감을 주고 있다.

토기나 도자기에서 보이는 이중적 구조적 성격을 띤 것들은 실용성과 장식성을 감안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물들은 아마도 평면(단층벽)에 문양을 새기거나 투각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좀 더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행해졌을 것이다. 다른 장식기법보다 문양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내벽이 보이게 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시각적 중량감이 배가되어 나타난다. 내부공간의 암시로 전체 외벽은 자연히 부피감을 가지며 부피감은 공간을 내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중복된 공간의 점이현상으로 이해되어 폭 넓은 조형언어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이중도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투각장식들은 평면적인 요소 즉 회화기법이나 양각, 음각, 상감, 귀얄 등의 다른 장식요소들과 비교될 때 투각이 가지는 3차원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한층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각적인 중량감은 시각적 대비가 투각이라는 모체를 통해 한층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외벽의 기면에 투각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부공간의 암시로 전체 벽은 자연히 부피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⁴¹⁾ 내벽과 외벽사이에서는 새로운 공간 생기게 된다.

3. 투각의 조형성

한국적인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으며 화려하고 귀족적인 풍취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민과 친근하지는 않은 고급도자기, 가구, 왕관, 건축 등에 사용되어 특권층의 전유물로 사용되어 다양하기는 하나 폭넓게 사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투각기법은 시각적으로 투각된 면사이로 보이는 공간과

40) 송재선.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2008. p.76

41) 노황우. Ibid p.310

형태사이에 조화로움이 생기게 되는데 사용된 장식적 조형요소는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식적 특징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권위성이 강조된 것이기는 하나 독특함과 심미적으로 우수한 조형기법이다. 또한 투각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단절이 아닌 소통의 관점에서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 화려하고 장식적이지만은 내부와 외부 공간의 소통을 나타낸 것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⁴²⁾

투각의 조형적 특징을 보자면 투각은 장식성을 가지며 공간감을 표현한다. 입체적이고 부피감과 깊이감을 보여주며 일정한 형태와 문양을 반복 사용하여 통일감과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 투각으로 인하여 무게가 가벼워지고 변형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간에 공간감을 만든다. 또한 소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 투각을 활용한 작품사례

현대의 도자기에서는 투각 기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로 주로 조명등이다. 조명등 자체가 구멍이 있어야 하므로 투각 문양을 넣어 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명등 외에도 접시의 가장자리나 커피 잔의 굽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이중투각 기법을 활용하여 화병이나 술병 등이 선보이기도 하고 백자의 경우 투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 소수 작가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자기의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벽장식이나 가리개,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처럼 새로운 영역에서도 투각 문양이 활발하게 장식되고 있다.⁴³⁾

정성근의 작품 『백자한글투각사각문』 [도24]은 투각의 작품 사례는 한글을 가지고 투각 작업을 하는 정성근작가의 작품이다. 투각을 하기 힘든 백자를 가지고 이중구조에 기에 투각을 통해서 한글이라는 우리의 글을 가지고 디자인적 작업을 통해 장식성을 주면서 투각을 통해서 안에 보여지는 공간의 깊이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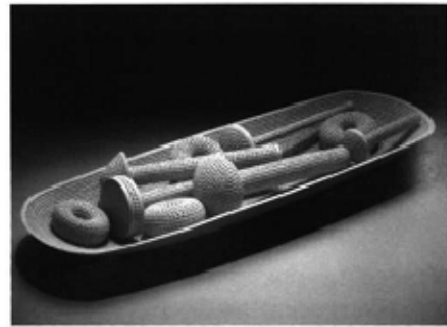
42) 노황우. Ibid p313

43) 김애연. 『투각기법을 응용한 도자기 디자인 개선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Tony Marsh의 작품 『Untitled』 [도25]는 여러 가지 사물을 투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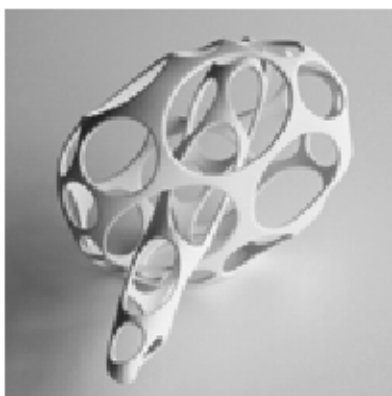


[도24] 전성근, 『백자한글투각사각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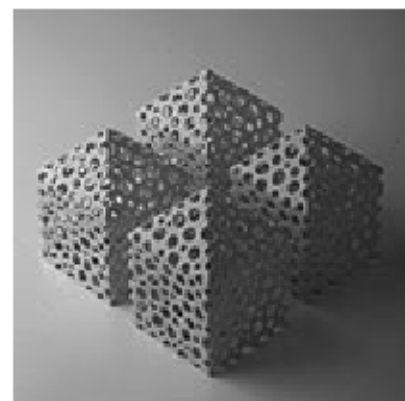


[도25] Tony Marsh, 『Untitled』, 1996

일본작가 마코토 코마츠(Komatsu Makoto)의 작품 『KUU Series』 [도26], [도27]의 원 투각을 통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 생기는 공간에 관해 표현한 작품이다. 일본어도 'KUU'는 '비어있음, 먹다, 둘로 나누어짐, 하늘, 9, 본래 상태, 둥근 물체, 헛됨.'등의 많은 의미를 갖고 읽혀진다. 『KUU Series』에서 뚫려진 구멍은 각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품 자체에 기하학적인 미를 나타내기도 한다.⁴⁴⁾ 투각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서 겹쳐진 기물들과 투각을 통해서 생긴 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반대 면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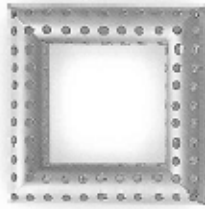
[도26] Komatsu Makoto, 『KUU Serie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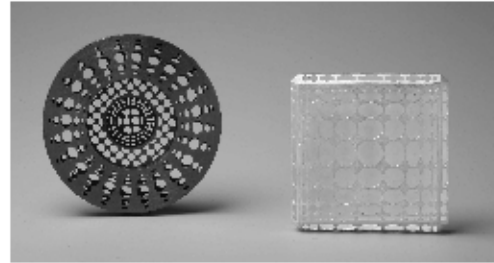
[도27] Komatsu Makoto, 『KUU Series』, 2001

44) 권형미, 『디지털로그DIGI-LOG이론을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7

욱 재미있는 이야기꺼리와 공간을 보여지고 있다.



[도28] 우진순, 『브로찌』, 1997



[도29] 정진아, 『점의 중첩4, 5』, 2005

우진순의 작품 『브로찌』 [도28], 정진아의 작품 『점의 중첩4, 5』 [도29]은 작은 구멍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뚫음으로 내부 구조가 보이는 작업으로 시각적으로나 무게감으로도 가벼움을 느낄 수 있으며 구멍의 투각을 통해 뒤로 보이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도30] Eduardo Andalus, 『Bowl』, 2001

에두아르도 안달루즈(Eduardo Andalus) 작품 『Bowl』 [도30]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투각을 통해 공간의 살려 표현한 작업이다. 외벽은 큰 원의 투각 내벽은 작은 원의 투각으로 각각의 투각으로 통하여 보여진 공간을 투각의 장식성만이 아니라 부피감과 다채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IV.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우리나라의 현대도예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표현 방법이 다양화되고 조형적 표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용과 아름다움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온 종래의 도예는 점토 자체의 재료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방법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종래 공예개념의 견고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공예가의 주관적인 미적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양상으로 이중기 또한 전통적인 양식의 이중구조에서 보여지던 도자기를 배경으로 하여 폭넓은 조형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응용하여 외부와 내부공간에서의 새로운 조형 형태를 창출하기에 이른 것이다.⁴⁵⁾ 현대도예에서 보여지는 이중기벽도자는 개성적인 양상과 더불어 심미적 기능을 중시하며 오브제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기벽을 이용한 도자 조형은 시각적인 외형에서부터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중복 및 이중구조로 인해 하나의 조형에서 무한한 형태변화를 가능케 한다. 두 개의 개체가 안과 밖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므로 외형과 내형의 변화에 따른 조형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두 개체의 결합점인 전의 두께와 각도에 따른 형태가 조형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적인 결합공간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중기벽용기의 구조는 기능이 장식적 목적에 수반된 순수 조형성 표현의 한 방법이며 새로운 공간 설정이라는 관념적 견해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⁴⁶⁾

중첩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중첩과 투각을 이용하여서 공간을 새로이 찾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중첩의 의한 '겹'을 표현으로 이중삼중구조의 겹침에 투각을 통한 공간표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첩을 통해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며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장되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원통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도형으로 정하여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시각적 안정감을 주어서 작업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여러 개의 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공간의 깊이가 나타

45) 김인곤. 『이중기가 갖는 내부공간의 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0

46) 박승남. 『도제 이중기벽용기에 관한 조형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7

나는 것을 단순히 빈공간이 아닌 뒤에 다른 공간이 있음을 느낌으로 공간의 깊이를 증대하였다. 이중·삼중의 중첩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해 투각을 통하여 보여지는 면과 벽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중첩을 통해 공간의 깊이의 차이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중첩은 내벽과 외벽은 두 벽 사이의 공간을 포용하면서 형태에서의 부피감과 형태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준다. 두 개의 형태에 의해 좁혀진 공간은 중첩과 투각의 구조적 형태를 설명한다. 공간이 시각적으로 확장되어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함과 다양한 의미를 공간의 요소들로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란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한 순수한 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응축된 단순화된 형태를 말한다. 기하학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형태가 갖고 있는 질서에 의해 규칙적이며 객관화될 수 있다. 형태로서 재현이 가능하며, 극도로 단순화되어진 형태를 시각적인 전달이 빠른 기본 형태이다.⁴⁷⁾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에 면을 살려서 작업하고 그 면들을 투각을 통하여 투명성을 주고 중첩을 통하여 공간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투각을 통하여 외벽과 내벽과의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공간은 형태안의 공간이 연속성을 지닌다. 공간을 통해 시선의 이동으로 전체의 형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비어있는 내부공간을 우리는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간은 외부공간과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공간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투각은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이라서 많이 신경쓰이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작품을 중첩된 형태의 기물에 각각의 면을 투각을 하여서 접합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서 투각시기와 접합시기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였다. 중첩된 기물에 투각을 통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사이의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외벽과 내벽의 한 덩어리로서 안정감, 중량감 그리고 운동감 등으로 조화되어 조형을 이루진다. 투각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제작과정

1) 소지

산백토는 산청토와 백자토의 혼합토로 성형의 용이성, 건조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고 백토에 산청토를 혼합하여 형태가 깔끔하게 떨어

47)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86

지고 투각을 하여야하기에 입도가 고운 산백토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2) 성형

- ① 판을 밀어서 두께가 5mm정도 두께의 판을 파이프에 말아서 세워 원기둥 형태를 만드는 파이프 성형을 한다. (파이프에 판을 말아 줄 때에는 신문지를 파이프에 말아주어 흠 판이 붙는 것을 막아준다.)
- ② ①보다 4cm가 큰 사이즈의 파이프에 판을 밀어 ①과 같은 방법으로 원기둥을 만들어준다. (여러 겹이 경우 더 큰 사이즈의 원기둥을 더 제작 한다.)
- ③ 판을 밀어 가장 큰 원기둥의 넓이 보다 큰 바닥 판을 만든다.
- ④ ①원기둥에 바닥면을 먼저 접합하여서 투각을 한다. (투각을 할 때에는 원 형태를 OHP필름으로 본을 만들어서 그 본을 그려서 투각을 한다. 안에 투각은 겹면을 접합을 하면 투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투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접합면을 다듬은 후 ②원기둥을 ④에 접합하여 준다. (이 과정을 겹에 따라 여러 횟수가 진행된다.)
- ⑥ 가장 외벽을 접합 후에는 천과 비닐로 밀봉을 하여 1일정도 둔다.
- ⑦ 1일 후 접합면과 외벽을 깔끔히 다듬는다.
- ⑧ 다듬은 후 외각을 투각을 하고 투각한 면들을 스폰지를 이용해 마무리한다.
- ⑨ 천과 비닐을 덮어서 천천히 건조 시킨다.

투각을 할 때에는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에 벽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칼이 들어가는 깊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각 면을 다듬을 때는 아주 매끈하게 다듬어주어야 투각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아랫면의 곡선으로 처리된 작품은 투각을 하면서 아래면의 곡선도 완성시켜준다. 뒤집어서 마지막 완성 형태를 확인하고 스폰지로 다듬어준다. 아래 면이 윗면과 같은 작품은 외형을 접합 후 미리 밀어놓은 판에 접합을 시켜주는 과정을 한번 더 이루어져야한다. 그런 후 천을 덮어서 하루 둔 후 다듬어 주는 과정은 위에 과정과 같다. 이 경우에는 판을 미리 만들어서 조금 힘이 있는 판에 붙여야지 처지는 형상을 막을 수 있다. 건조는 천천히 천을 덮어서 시켜주며 투각 면과 접합면에 금이 가는지를 중간 중간 확인하고 만약에 금이 갈 경우는 그 면을 나무도구 등으로 다듬어준다.

3) 유약

유약은 백매트에 망간을 첨가한 유약으로 환원에서는 노란색을 산화에서는 보랏빛을 내는 유약이다. 본 작업은 산화 전기가마로 소성하여 보랏빛의 색을 보여준다.

4)건조

이중구조의 작업에서 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건조라고 본다. 건조 시에 많이 파손이 된다. 건조 시에는 표면수분과 내부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표면수분만이 급격하게 건조 된 후 내부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 금이 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건조 속도를 처음에는 길게 잡아주는 것이 건조 시에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그늘진 곳에서 비닐을 덮어서 서서히 내부수분을 증발시키고 표면수분을 건조시켜야 한다. 본 작업은 이중구조에 형태에 투각을 하여야하기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의 건조도를 맞춘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내부형태를 만들고 외형을 만든 후 하루를 천과 비닐을 완전히 밀봉하여서 둔 후 다음날 외형을 다듬고 투각을 진행하였다. 점토의 건조과정에서 외형의 수분만이 날아가지 않고 내부에 있는 수분과 외부의 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져서 금이 가지 않는다. 수분을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기물에 전체적으로 같은 수분을 유지하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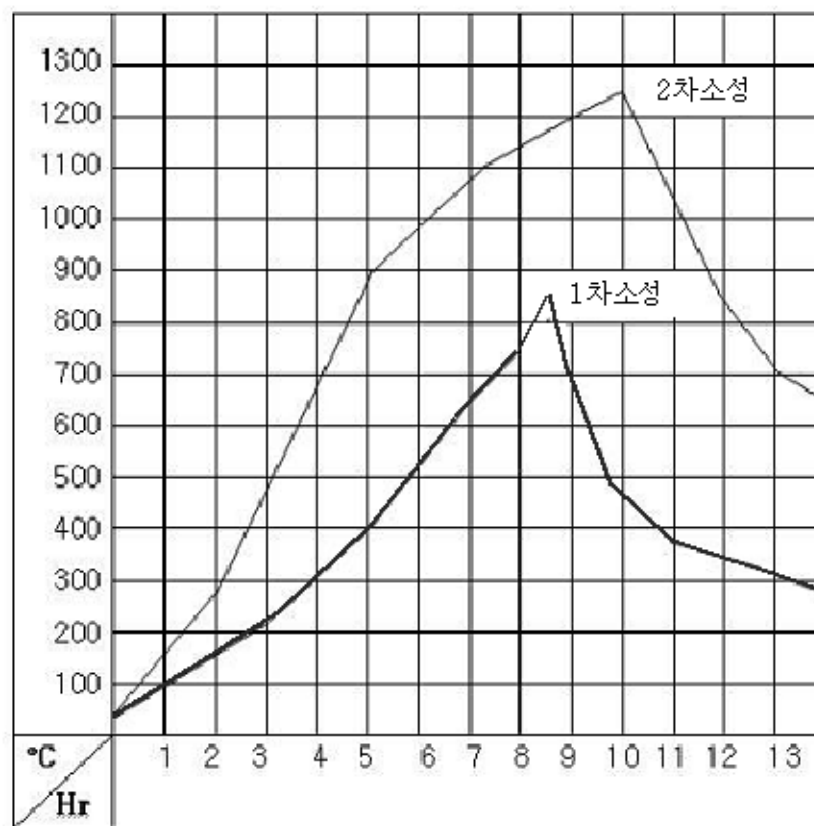
완성한 작품은 다시 천과 비닐을 완전히 밀봉하여 24시간을 경과시킨다. 그 후 1일 1회씩 비닐을 열어서 금이 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꾸로 뒤집어 세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5일 정도를 확인을 하고 금이 가지 않으면 비닐을 열고 천으로 만을 덮어서 건조 식힌다. 바람이 불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두고 건조를 시켜야한다. 건조 시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 소성과 시유

1차 소성 (초벌구이) 전기가마로 540℃까지는 온도를 최대한 서서히 올려 소성을 하고 850℃에서 소성하였고 가마가 완전히 식은 후 100℃이하에서 기물

을 꺼내었다. 스펀지와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먼지를 완전히 제거 한 후 담금 시유 하였다.

2차 소성 (재별구이) 매트유로 1250℃로 산화 소성하였다. 2차 소성시간은 소성을 천천히 10시간이 걸려서 소성을 하였고 꺼낼 때도 역시 가마를 천천히 식혀서 꺼내었다.



[표1] 소성그래프

3. 작품설명

[작품1] 중첩 I

조형적 측면에서는 원기둥 형태를 기본적으로 사용한 작업이다. 형태에 원이라는 투각은 세포가 일정한 크기가 되면 증식을 하기위해서 분열을 하여 개체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는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위해서 분열을 해나가는 것을 원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타원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작품은 원기둥의 형태에 이중의 구조로 내벽과 외벽은 두 벽사이의 공간으로 부피감을 보인다. 이중 공간에 원 투각을 통해서 보이는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 중첩 I, 330×490×H49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2] 중첩 I

원기둥형태의 이중구조로 중첩 I 보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 넓이를 더 주어 작업으로 원과 원사이의 보여지는 단면을 통해 깊이감을 보여준다. 바닥면은 운동감을 표현하였다.

나의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작품의 하단부에서의 공간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단부에 곡선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중첩에서 보여지는 공간감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작품2] 중첩 II, 230×230×H12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3] 중첩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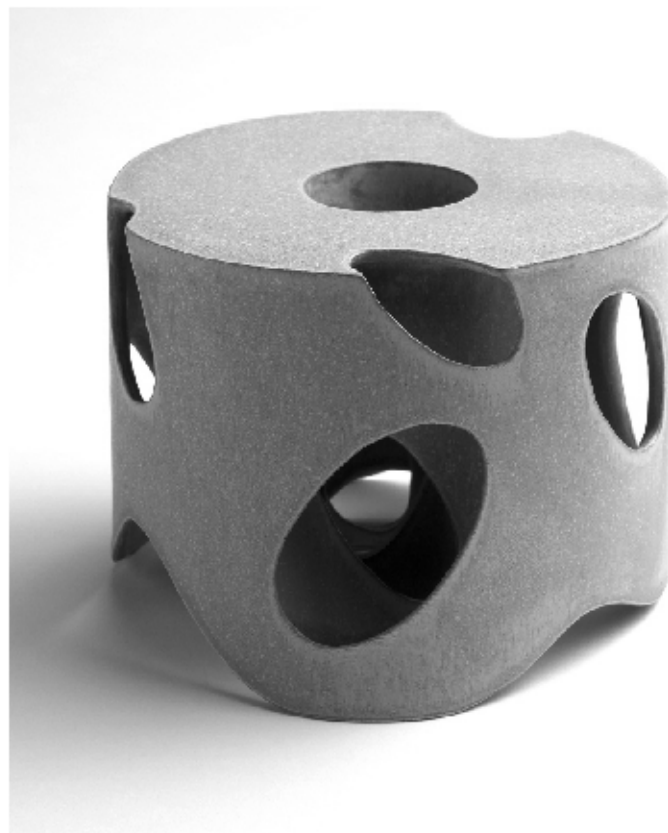
세 겹의 형태의 작업으로 바닥 면은 곡선을 살려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세포의 운동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러 겹의 공간을 통해 조형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중 중첩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해 투각을 통하여 보여지는 면의 벽의 사이의 생기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중첩을 통해 공간의 차이 깊이를 느끼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공간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 중첩에 의해 더욱 커지며 시각적 관통으로 깊이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유기적인 결합으로 보이는 효과를 통해 더 많은 공간과 깊이가 표현되었다.



[작품3] 중첩Ⅲ, 260×260×H13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4] 중첩 V

원기둥형태의 원 투각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를 세 포의 핵을 보여주는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점점 안으로 겹쳐지는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윗면을 직선의 단면에 바닥면의 중력의 힘의 의해 아래로 흐르듯이 물결을 치는 곡선의 운동감을 통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바닥 면에 높낮이를 통해 보여주는 공간을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작품4] 중첩 V, 185×185×H145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5] 중첩 VI

윗면과 바닥면을 직선으로 기본적인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원 투각을 통해 세 포가 중식해가는 운동감을 표현하여 보여지는 공간을 작업하였다.

간단하고 명료한 기하학형태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원의 투각을 직선만이 아니라 형태를 따라 원의 운동감 표현하였다. 그리고 세 겹으로 이루어진 기물을 통해 외벽과 내벽에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작품5] 중첩 VI, 180×180×H145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6] 중첩 IV

원기둥 형태에 작업을 옆으로 세워 보여주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을 중첩을 통해 여러 겹이 겹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 위에 쌓여가는 우리의 추억을 표현하였다.

바닥면과 윗면의 소통을 통해 중첩되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6] 중첩 IV, 260×260×H11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7] 중첩 VII

형태상 길이의 변화를 준 작업으로 세 겹으로 이루어졌다. 투각을 통해 한 면에 여러 개의 원 투각으로 겹쳐진 공간을 통해 열린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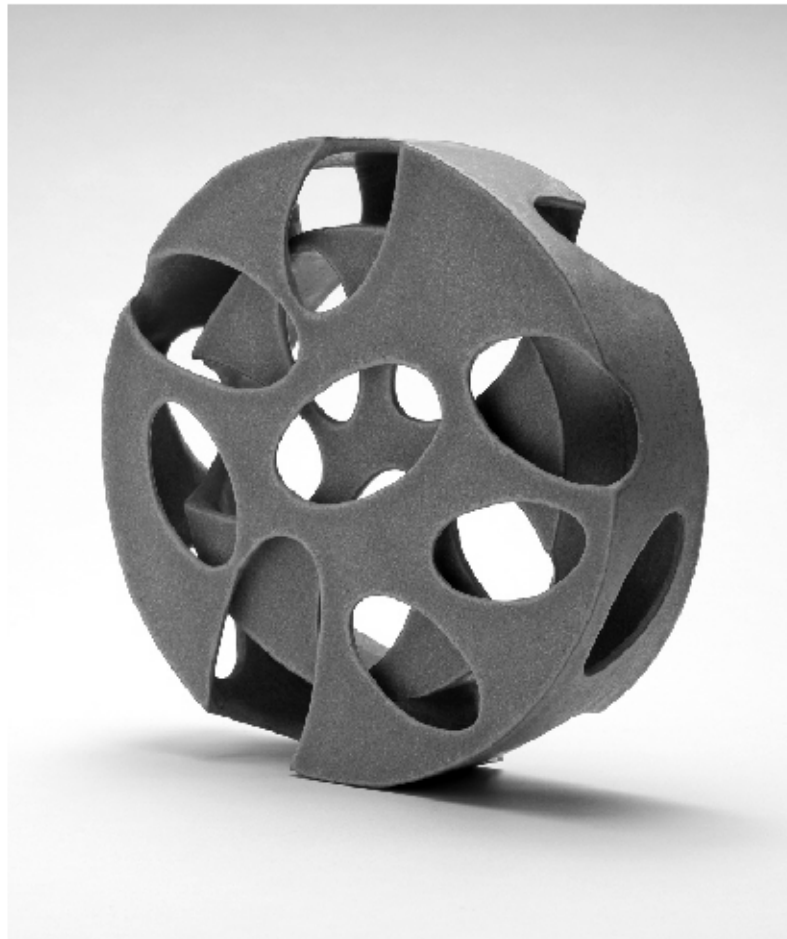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길어진 형태를 투각을 통해 세 겹의 간격을 좁혀서 면과 면 사이의 공간을 빈공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의 공간을 표현하였다.



[작품7] 중첩Ⅶ, 115×115×H28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8] 중첩 VIII

세포는 자신의 내용물을 복제하고 또한 진화시킨다. 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세포가 좀 더 촘촘히 중첩된 형태를 좀 더 살려 보기 위해서 겹침을 주어서 표현한 작업이다. 각각의 형태를 11로 형태로 만들어 작업해 넓은 면을 이용하여 투각을 하여서 더 많은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투각된 면의 재미는 더 줄 수 있는 작업이었다. 세워서 또는 벽에 붙여서 있게 장식하여 깊이 있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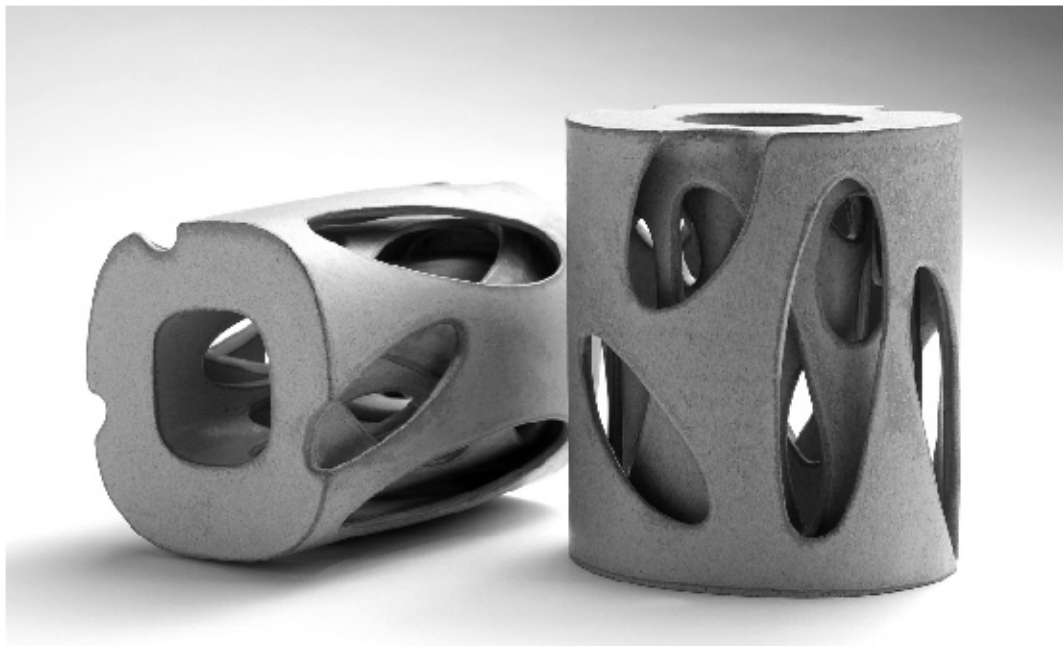


[작품8] 중첩VIII, 200×200×H5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9, 작품10] 중첩 IX, 중첩 X

중첩 IX와 중첩 X는 기존에 원형의 형태로만 작업한 것에서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각형과 타원 형태를 제작하였다.

세포가 투각된 원의 분열과 진화만이 아니라 원기둥 형태에서 사각 형태와 타원 형태로 진화됨을 작업하였다.



[작품9] 중첩 IX, 110×110×H14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작품10] 중첩 X, 120×120×H140mm, 산백토, 매트유, 1250℃, 산화소성

V. 결 론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공간을 접하고 있다. 중첩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중첩과 투각을 통해 공간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첩의 개념을 공간 형태를 파악하고 투각 통해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선, 중첩과 투각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보고 중첩과 투각의 작품들을 살펴본 후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공간을 찾는 디자인하고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첩과 투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중첩과 투각을 통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기하학 형태의 기본 도형인 원기둥형태의 크기의 변화와 이중·삼중구조를 통해 공간감과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중첩과 투각을 가지고 작업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적인 미를 표현되고,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작업으로 겹쳐진 면의 투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무한한 공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부피감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공간조형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큰 사이즈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구의 부족함에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작업과정을 통하여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중첩과 투각을 이용한 앞으로 다양한 조형적 시도를 통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사전

- [1] 권태명,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 [2] 안연희역음,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 [3] 어문각역음, 『우리말사전』, 어문각, 2008
- [4] 이용백·김원경·김선풍 교수 감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4
- [5] 월간미술역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8

단행본

- [6] 김병역, 『도자 장식기법』, 태학원, 2002
- [7] 데이비드A 리우어, 스테플른 펜탁 이대일역,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 [8]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5
- [9] 송재선,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2003
- [10] 아사쿠라 나오히, 김학성, 조열 공역, 『평면구성』, 조형사, 1999
- [11] 이진성, 노덕주, 이지현, 정재진, 이용석 공저, 『도자공예개론』, 예경, 2008
- [12] 조지 케페스, 유한택역, 『시각언어』, 대광서림, 1989
- [13]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학위논문

- [14] 고선영, 『중첩이미지를 응용한 디지털 날염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03
- [15] 김애연, 『투각기법을 응용한 도자기 디자인 개선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김인곤, 『이중기가 갖는 내부공간의 조형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7] 김현미, 『중첩에 의한 공간 역동성 및 연속성의표현과 디자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8] 남현우,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9] 박승남, 『도제 이중기벽용기에 관한 조형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유명강.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설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1] 윤일. 『행복한 공간문화 디자인을 위한 진화심리학적 고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2] 이정주. 『현대자수에 설치방법에 있어서 중첩과 반복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3] 조명희. 『회화의 표현특성을 응용한 조명판매 공간 계획: 큐비즘 회화의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2009
- [24] 최경우. 『중첩의 개념과 형태- 공간적 유형 특성을 적용한 전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5] 최은정. 『기하학적 조형을 통한 감각적 공간체험: “Vague Space” 연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6] 편형미. 『디지로그DIGI-LOG 이론을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학회논문

- [27] 노황우. 『투각기법을 활용한 전통 상품 패키지디자인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Vol.9 No.2(2008. 5)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Using Overlapping and Bratticing

Jang, Mun Sin

(Supervisor Park, Sun Woo)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very substance exists in space. The space forms overlapped space comprised of several constructive factors. Space surrounding substances has influences on mode of conduct and way of thinking, which work for the existence of objects. Visual interest and tension can add new concepts to space. Space is not meaningless or vacant. Instead, space allows different interpretations freely and infinitely.

This paper approach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overlapping and bratticing, which serve as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aper, and attempted conceptual approach based on these concepts.

I intended to express the depth of space and new space configuration through my works. The depth of space was maximized by adding the expression technique of bratticing to overlapped space.

Chapter 2 examined the definition of overlapping, and the spatiality and artistry of overlapping, and explored works using overlapping technique. Overlapping means "a form that several elements are stacked together." Space is created in the process where one plane is partially overlapped by another plane. Overlapping provides spatial depth to the viewer and creates a boundless world by making spatial movement in visual terms. This chapter explored how to utilize space through overlapping technique.

Chapter 3 examined the definition of and the liveness and formativeness

of bratticing, and explored works using the technique of bratticing. The dictionary meaning of bratticing is "carving parts to depict or such technique." This chapter examined how to effectively express by using bratticing technique.

I intended to create space by using overlapping and bratticing techniques, and to create new space between exterior wall and interior wall by using overlapping techniques to two/three-layered objects, which were created by overlapping circle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This paper found out that plane creates space through the expression technique of bratticing and maximizes visual effects. I hope this paper will help me make great progress in my works.